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6, 유신론적 주장, 5부, 종교적 경험과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관련성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종교적 경험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신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 신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여 그것이 합리적임을 보여주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종교를 믿거나 신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특정한 경험 때문에 그런 견해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경험이 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종교적 경험은 기독교나 더 일반적으로 유신론에 대한 합리적 사례를 구축하는 데 가치 있거나 유용합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종교적 경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의 종교 개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정의에 따라 자연과의 일체감에서 자아실현의 경험, 성경의 신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의 느낌과 같은 더 구체적인 것까지 다양한 경험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 신자들에게 진정한 종교적 경험은 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특징지어져야 합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특징지을 것입니다. 신과의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종교학 학자 루돌프 오토가 신비로운 경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성하고, 선하고, 경외롭고, 주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주체가 삶과 보살핌을 위해

의지하는 인격적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입니다. 이것이 오토가 신비로운 경험에 대해 정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의 여러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어떻게든 개인적인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일종의 힘이나 에너지 또는 우주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종의 의식, 인식, 관심을 수반하는 개인적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선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는 일종의 도덕적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 별개이거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토가 정의한 대로, 신비로운 경험에서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자아를 경험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와 분리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사람이 의지하는 존재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는 의존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근원이거나 내 존재의 이유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개념의 일부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위대한 고전인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서 그러한 경험의 수를 분석합니다. 매혹적입니다.

저는 그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그것이 수십 년 후에도 그 주제에 대한 최고의 학술적 탐구로 남아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경험에서 신의 존재까지 논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논쟁을 시도했습니다.

종교적 경험에 대한 논증이 취하는 두 가지 다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때때로 인과적 논증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사람의 경험의 결과에서

원인으로서의 신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그런 다음 직접적 지각 논증이 있는데, 이는 신에 대한 지각이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감각적 물리적 대상에 대한 지각과 유사하다고 추론합니다.

그것이 직접 지각 논증입니다. 그러니 종교적 경험으로부터의 인과적 논증으로 시작해 봅시다. 특히 사람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때, 사람의 경험의 효과로부터 추론해 보세요. 그로부터 그 변화의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신에게 추론해 보세요.

기독교나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그리스도께로 와서 개종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이 모든 면에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나쁜 습관과 악덕을 포기했고, 지금은 덕이 있거나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바로 신입니다.

그런 종류의 증언은 적어도 많은 경우 명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암묵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인과적 주장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종교적 경험과 특히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심리적, 사회학적으로, 예를 들어 새로운 개종자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종류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들이 수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도덕적 의무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쳤고, 이제 이것이 그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삶을 사는지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명은 심리적, 사회학적으로 자연스러워지는 방식일 것입니다. JP Moreland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고, 이러한 반대 의견을 다루었으며, 종교적 경험이 심리적, 사회학적 요인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적 경험에 근거하여 이러한 인과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심리적, 사회학적 인과적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고려 사항 또는 그러한 요인들이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설명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순전히 심리적, 사회학적 용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변화에 대한 특정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Moreland는 또한 사람의 삶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거나 사회학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변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종교적 변화의 본질과 범위에서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는 덜 그럴듯해집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 맥락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제임스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연령대 등 매우 다양한 맥락이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의 심리적 상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심리적 조건에서 동일한 종류의 변화, 극적인 삶의 변화를 볼 때,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에 더 많은 신빙성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Moreland는 기독교 종교적 경험이 객관적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적 격자, 즉 인간 경험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객관적 사건,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과 초기 교회에서 오늘날까지의 변화의 역사를 고려할 때, 우리는 유사한 변화가 기독교인의 삶에서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정말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물론, 성경은 종교적 변화가 일어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범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종 이전의 사람의 죄스러운 본성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얼마나 덕성 있게 살 수 있는지에 있어서 실제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종과 성령이 사람의 삶에 들어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덕성 있게 그리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다시 주는 일종의 배경 신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진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적 경험으로부터의 인과적 논증입니다.

이제 종교적 경험에서 직접 지각에 대한 논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지각 또는 신에 대한 영적 지각과 우리가 주변 환경에서 다양한 물체를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으며 하루 종일 경험하는 보다 평범한 종류의 지각 사이의 일종의 유추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어도 많은 경우 신비적 경험과 신비적 지각이 감각적 지각과 충분히 유사하여 전자가 진짜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리적 사물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듯이, 우리는 실제로 영적으로 신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논증, 이 비유를 사용한 전체 분석은 위대한 최근의 기독교 철학자 윌리엄 올스톤이 개발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인 *Perceiving God*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인식론자입니다. 올스톤은 30~40년 전 기독교 철학 르네상스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고, 앨빈 플랜팅가, 멀린과 로버트 애덤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올스톤은 누군가가 신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인식을 가졌다는 주장에 잠재적으로 좋은 인식론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믿음 형성 또는 믿음 형성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관행을 비교하여 이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감각적 지각이며, 신비적 지각이라고도 불릴 수 있고, 신비적 지각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JP Moreland는 Alston의 여러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적용했으므로, 저는 이것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Moreland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각 지각의 특징이나 기본적인 측면을 고려하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테이블과 의자, 나무와 바위와 풀과 구름을 볼 때마다, 주변 세계를 감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글썄요, 먼저 피험자가 감각 지각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그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을 수 없고,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며, 감각 기관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눈과 대뇌 피질의 시각

중심과 그 신경을 보려면 상당히 잘 작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대상은 특정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둘째, 감각적 지각은 그것이 진실할 때, 즉 신뢰할 수 있고 진짜일 때와 관련이 있습니다. 감각적 지각은 대상에 대한 것이거나 대상을 향해 지향됩니다. 지각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의자를 볼 때, 내 지각은 그 의자를 향해 지향되고, 그 의자는 나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며, 내 마음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셋째, 감각적 지각에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의자를 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나만의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여기 있고 다른 각도에서 의자를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는 나에게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측면은 그 의자가 당신과 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자와 같은 물체를 볼 수 있는 각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모든 각도에서 그 모양이 약간씩 다를 것이고, 조명 등에 따라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적 지각에는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넷째, 감각적 지각은 부분-전체 구분을 허용합니다. 대상을 진정으로 지각하기 위해 전체를 지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자를 바라보고 볼 때, 나는 그 의자의 특정 표면만 보고, 그것은 실제로 의자의 전체적인 물리적 구성에서 아주 작은 비율을 구성합니다.

어떤 물리적 대상을 아무리 철저히 조사하더라도, 실제로는 당신이 지각할 수 없는 내부 물질 때문에 그 일부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부분-전체의 구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일부,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만 경험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대상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각 지각에 대한 공개적인 확인이나 테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무언가 눈에 띄고 사슴처럼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는 특정 장소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어떤 종류의 동물도 있었습니다.

야, 그거 봤어? 뭐? 글썄, 사슴이었어. 응, 봤어. 알았어.

그리고 그게 확인시켜 주죠,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슴이 도시 한가운데서나 이상한 곳에서 뭘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확인을 요청하죠. 알다시피, 와, 저거 보세요.

저기에 뭐가 있는 거야? 몇 년 전 인디애나 중부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가 지나가는 나무 중 하나에 흰머리 독수리처럼 생긴 게 눈에 띄었어. 아들에게 흰머리 독수리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도 이 지역에서 흰머리 독수리를 봤다고 하지만, 놀라웠어.

그래서 저는 그 경우에 제 감각 지각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고, 제 아들에게 물어보면서 대중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지각을 확인해 달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할수록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각 지각의 다섯 가지 특징이며, 다소 평범하고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알스톤과 모를랜드가 지적했듯이, 이와 동일한 종류의 조건이 신비적 지각에도 적용됩니다. 신비적 또는 신비적 지각의 맥락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사실부터 시작합니다.

주제는 종교적 또는 영적인 인식과 같은 것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을 찾으려는 어떤 의지, 어쩌면 일종의 성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필요할 겁니다. 확실히, 응답하려는 의지와 신이나 적어도 어떤 영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비로운 지각을 갖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둘째, 신비적 지각은 신을 대상으로 삼거나 신에게로 향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신비적 경험을 할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단지 자신의 정신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라면, 그 경험은 신에게로 향하고 의도적으로 신을 대상으로 향합니다.

셋째, 신비적 지각은 감각적 지각과 마찬가지로 공적 측면과 사적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정확히 내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당신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와, 당신의 관점이나 관점을 듣고 싶어요. 신과의 관계나 만남에 관해 당신이 어떤 관점에서 서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은 마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각 인간은 신에 대한 고유한 접근 방식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신비적 지각은 부분-전체 구분을 인정합니다. 신을 진정으로 지각하기 위해 신을 철저히 지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은 무한히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신을 철저히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 배울 수 있거나 잠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한한 존재를 만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신에 대한 모든 경험은 신의 무한히 작거나 제한된 측면에 도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신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신과 어떤 식으로든 직접 만날 수 있는지 묻는 오경에 이런 유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네가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 그렇지? 그게 너를 쓸어버릴 거야. 그게 너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나갈게, 그가 모세의 은신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내 뒤통수를 보여줄게.

적어도, 한 성경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뒤쪽 부분이나 신의 뒷부분, 뭐든. 그것은 단지 신성한 존재에 대한 일종의 힌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론, 신이 지나가면서 신의 뒤틀린 부분을 엿볼 때, 그것은 모세를 완전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너무 밝게 빛나서 그의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베일을 두르세요.

당신은 우리를 눈멀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력한 증거 또는 예시입니다. 그것은 이 필멸자에게 하나님의 뒤통수나 영덩이를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모세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과 매우 제한적으로 직접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신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신비적 지각에 대한 공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 일부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논리적 일관성입니다. 어떤 대상도 감각적 경험도, 우리가 물리적 대상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안녕하세요, 방금 보도에서 둥근 사각형을 발견했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당신은 "글쎄요, 당신이 발견한 것이 둥글었는지 사각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아니었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모순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 지각이나 신비적 지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라면, 그것에 대한 주장은 적어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글썄요, 저는 신을 경험했어요, 신은 인격적이면서도 비인격적이에요. 그것은 자기 반박이거나 자기 훼손일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신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지만, 그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전적으로 인격적이고 전적으로 비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한 신비적 지각에 대한 또 다른 시험은 모범 사례와의 어떤 유사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특정한 모델, 수세기에 걸친 종교적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 에스겔, 사도 요한,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기록과 경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로 들면, 그들은 모두 극도의 겸손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에스겔, 이사야,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나는 붕괴되고 있었고, 나는 무너졌고, 나는 여기 신의 면전에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제키엘과 요한은 모두 얼굴을 아래로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신을 직접 경험한 많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나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극단적인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신을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신에 대한 진정한 직접적인 지각의 특징 중 하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빈도를 보면, 신비적이거나 신비로운 경험은 진짜라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경험이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신에 대한 경험의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같은 종류의 강도나 같은 정도의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신에 대한 인식은 사람의 삶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야 하거나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의 삶 속에서의 일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런 종류의 설명이 신뢰할 수 있다면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유익한 결과입니다. 그러한 경험의 결과는 그 대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교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잘 지내고 사람들을 잘 대하고, 덕행 있게 살고, 더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모든 덕행은 적어도 사람의 삶에서 증가해야 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들은 더 덕행 있게 살고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가진 이 객관적인 계시의 본체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신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신을 경험했다면, 사람들의 삶에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스톤과 모어랜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신에 대한 신비적 지각 사이에 인식적 동등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가 믿음 형성 관행으로서 인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Keith Augustine이라는 사람이 등록한 몇 가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는 Alston 동등성 논증이 실패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신성한 존재의 본질을 확립하기 위한 공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각적 경험을 통제할 수 있듯이 이러한 경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과 의자 등에 대한 특정 종류의 경험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지만 신과 신비적 만남에 대한 경험에 관해서는 같은 종류의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또한 신에 대한 엄청난 다양성의 믿음과 그가 표현한 대로, 엄청나게 양립할 수 없는 신비적 수행의 존재, 그리고 어떤 신비적 수행이 다른 수행보다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이 올스톤의 주장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의 이 두 가지 주장에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첫째, 공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의 부족과 관련하여, 저는 우리가 여기서 성경, 특별 계시를 언급하고 이것이 신성한 존재의 본질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신의 본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이해를 제공하는 정보가 넘쳐나고, 그것이 여전히 제한적이더라도 여전히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의 본성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사람이 신비적 경험에서 마주친 존재의 본성에 대해 하는 주장의 종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신비적 수행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유가 부족한 경우, 저는 그 문제도 특별 계시에 호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주장된 특별 계시가 가장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별개이지만 중요한 문제, 즉 비교 종교, 비교 종교 분석, 다른 종교를 살펴보고 그들의 신성한 텍스트를 평가하여 어떤 것이 신의 영감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대한 논의로 이끕니다. 역사적으로나 그 밖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 구약과 신약 성경이 신의 영감을 받은 계시라고 믿을 만한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란, 몰몬경,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자비로운 부처님의 말씀 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그 텍스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 전통이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방대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럼, 종교적 경험과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논의를 마칩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6, 종교적 경험입니다.